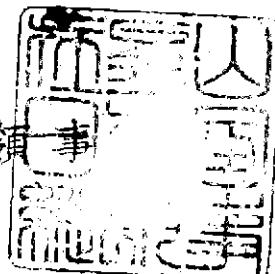


外務省大臣課長

() 第 1169 号
昭和 49 年 12 月 24 日

外務大臣殿

在 釜山 村 總領事



(件名)

日軍人・軍属等韓国人遺骨の引渡し問題

引用公・電信

日付・番号

12月23日件往電 甲265号

本件に宛て、12月21日付 釜山日報は、別添の
とおり社説を掲載したところ、何等御参考まで
右切抜記事(後記添付)送付する。

付属添付 付属空便(行) 付属空便(DP) 付属船便(貨) 付属船便(郵)

本信送付先: 大臣

本信写送付先: 在韓國大使

省内写配布希望先:

1800

1974. 12. 21 付 釜山日報

"社説"

やつと還された冤魂

中2次大戦中 日帝の強制徴兵と徴用に
引かはされた犠牲に当った韓国人遺骨 911柱が

光復29年5月11日 20日 白骨と共に無言の還さ
れた。 この冤魂は 戦後 東京の船

天皇に保管され11月2.3¹²9柱の遺骨が去る
71年11月20日 遺族が確認され第一次

奉還された246柱に次いで 第二次に 遺族が確
認され 帰り始めたのである。

日本厚生省から引渡されたこの遺骨は 21日
午前10時 全井中学校で 月韓兩国政府代表と
遺族が 参照して 合同慰靈祭が挙行された。

わが日本は 先ず 日帝に 強制徴用されて 復讐

する 手をした戦争のいけにえと見て 戦後29年間

1. やつと 故郷と 遺族の 3. 2. 3. 1. 2. 3. 4. 5.
冤魂の 畏福を 祈るとともに 11月1日 黑雲の空の下

2. さよなら 織り 1172枚の 雪魂は から
懸念の情を 撃げた。

今日 戦後 29年目に やつと 白骨に たつて お言の
遺言をした 雪魂を 奉迎し 震靈する わかわくは

今一度 日帝36年の 悪政を たたき政策と慈悲
悲を收奪、圧迫、~~敵~~の 背身にしつる 痛恨と悲

哀の 受辱時代を 思ひ出すには いいかな。

13. 3. の 改正は さて 進くとしても 復讐は 1938年

いわゆる「三宗勅令」と 39年「国民徵用令」を発
動して わが韓国人を なんと 600万名も 強制して

そのうち 72万名を 日本に 引はけた。

そして サハリンの 炭鉱は 4万余石を 送つのも始め
として、軍需工場、鉄道建設、飛行場建設、西洋

等に送つて酷使した。光州だけではなく
漢城の韓国人の未婚女性を無差別5万名を強制
姦

徹底して心中の女子挺身隊という美名をつけて
彼等日本兵士の慰安婦に使つ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韓国人を強制徴用して彼等の領土擴張
のための戦争のツールに使之して酷使しておるが、戦後

被害は不専一様性に有り人達に対する事倍
精選又生存者に対する措置等にあつて極めて

冷酷、非情な態度で一直してきてゐる。
魂魄と有つて遺骨の奉還における被害の無誠実が

ありあり、ナーリン江柳留江の帰途で希望して
113 385名中1,630名のわが同胞に対する彼等の

責任がまだあり、広島原爆被害者甲
5万余名（現在生存者2万余名）の治療及び救

清末に対する 很多の外罰が実行されて その
ような 日本の 非人道的にして 非良心の方 程度を

生むべく 立正して くれる。 日本は 韓国人
に対する 戰後 の 謂般 優待 や より 人道的 に

なつ 良心的 に 考慮を つくすべきであると思ふ。
奉還 遺骨に対する 輸送費は 253人、 遺族に対する

(葬) する 最少限の 布施金と 墓地費 及び 管理費を 支拂
われるべしである。 今度の場合、 遺族に

对于日本政府から 日賃 2万円、 韓国政府が 2万円オシ
算 4万円オシの 善典だけが 支給されよう、 これが

どうして 納得のいくものではなし。 わが玉
ベヌヘモ 去る 70年12月18日 京畿道 高陽郡碧蹄

面に 無縫故日本人遺骨 6000基を 安置する 日本人
納骨堂と 無名日本人遺骨合祀台 という 魂靈塔 まで

이제야 돌아온 先烈들

2차 대전 중 日帝의 残害 징벌과 정충동
에 물려가 화생된 灵魂이 우물 9월 11일
가장 29년 만에 29일 由日이 되어 故國에 돌아왔다.
이를 灵魂은 전후 日本東京의 우편자 (
祐天寺)에 보관되어 있던 2천 300원 29년의
遭冤中 지난 7월 11월 20일 유족이 확인되
어 1차로 韓靈이 되었다. 이에 46년 만이 2
차로 유족이 확정되었던 1974년 10월 20일
일본 身生者 이하 일본인 이들 유족들이
김일성 10시 金井하고 표정에서 韓日
양국 전부 대표와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同慰靈을 열었다.
우리는 먼저 田帝의 강제 토강을 끝내고 그
들이 월드 전쟁의 福物로 繼承되었다가
戦後 29년 만에야 간신히 故國과 遷族의 품
으로 돌아온 灵魂들의 真福을 봤다. 아울러
韓國의 하늘 아래서 해마다 찾을 수 있다.

천一魄 2位의 灵魂을 예로 아낌없는 慰撫
의 慚을 아울러 보고자 한다.
이를 전후 29년 만에야 白馬로 無言의 遺
國을 하게 된 원회를 告別하고, 慰靈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日帝 36년의 離難했던 植
民政策과 無聲默耐의 收容, 鎮制, 懲罰의
여지로써 痛恨과 悲憤의 殘虐時代를 생각
하지 않을수가 없거니와.
餘他의 虐政은 그만두고라도 그들의 1
03070 이른바 「國家勳昌令」과 39년 「
國民徵用令」을 말하는데서 우리 韓國人을
자그마치 08월 10일 나 동원해 두고 잡았다. 그중
에 저 韓民들을 일본으로 끌고 잡았다. 그리
하여 사헌원 탄핵 출신 다 소관부에 보냈다.
우리는 먼저 田帝의 강제 토강을 끝내고 그
들이 월드 전쟁의 福物로 繸承되었다가
戰後 29년 만에야 간신히 故國과 遷族의 품
으로 돌아온 灵魂들의 真福을 봤다. 아울러
韓國의 하늘 아래서 해마다 찾을 수 있다.

田帝의 의해 회생된 韓國人에 대한 日本
설, 비행장 건설, 난방료 등에 보조금
酷使에 酷使를 다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한 韓國의 미화정장을
우리나라에 아울러 축구해온다.

을 부르던 韓靈이 강제 징발해서 소위 遷
島民은 美식을 불명 그들 日本兵士들의
靈廟로 회생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韩國人을 강제 징용해서 그들의
領土擴張을 위한 전쟁의 福物로 酷使해놓고
戰役 그들은 韓靈에게 繸承된 자의 사후
처미나 아직도 生存해 있는 사람들을 대한
사후 처우에도 지극히 인색하고 凛酷하며
非情의 慢度로 일관하고 있던 것이다.
靈魂이 韓자와 遷字를 뒤집어 데린 그들의
無誠意가 그려하고 사설되어 韓靈되어 있
으면서 韓靈을 회망하는 35세 1천 0
백 300의 우리同胞에게 한글의 無實在이 또
한그리하여 히로시마原爆被爆者 15만명
명(現재 생존 12만명)의 治療과 救濟
策에 대한 그들의 外面이 또한 그려한 日
本의 非人道의 이오. 非良心의 慢度를 생
성하고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韩國人에 대한 戰後의 제반處理
를 보다人道의이고 良心의 의誠意를 다
해야 하리라 본다.
奉還 우물이 되는 수송비는 빌려 우족에
대한 최소한의 用慰金 또한 대안이나 관
리비까지 보호되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번제
례로 보면 痛恨과 悲憤의 残虐時代를 생각
우유족에게는 日本 정부에 서일화 2만엔, 우
리 정부에서 한화 2만 원 등 4만 원의 항전금만
이자로 되었단다. 이것으로 저히納得할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지난 70년 12월 18
일경기도 고양군 碱蹄면에다가 無緣故 日本
人 6千基를 安置하는 日本人納骨堂과 세워
名曰 本人遺骨祀墓라는 慰靈塔까지 세워
주지 않았던가.

田帝에 의해 회생된 韩國人에 대한 日本
의 朴과 誠意있는 处理를 다시 한번促求
하며 이정표한 우리政府의 効果의 例外
交노류로 이機會에 아울러 축구해온다.